

CEO 독서

신년 현충원 참배



김광재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1월 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게 분향하고 참배하는 것으로 한해 업무를 시작했다.

'퇴직 재취업자 일감 몰아주기' 전관예우 원천 차단

- 공사 및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개정... 1월부터 적용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설계·감리 용역업체 선정 시 '공단 퇴직 재취업자 일감 몰아주기' 등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하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 등 7건을 개정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전기·통신분야 설계·감리용역 기술자 평가 시 공단 퇴직 재취업자에게 절대 유리한 공단 근무기간 1년당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설계·감리용역 평가 시 외부위원을 30%만 위촉하던 것을 전연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철도·경전철의 유사용역 실적을 80%만 인정하던 것을 동일하게 100% 인정하는 외에 감리용역 유사실적 평가기준금액을 2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전관예우 근절 및 중소기업체와 후발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한, 공사계약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광역철도사업 및 수탁사업(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분담)의 지역업체 가점 참여비율을 10%에서 25%로 늘리고,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해 3점까지 감점하던 것을 -5점까지 확대하며, 감점의 주요 상쇄항목으로 이용되는 환경시스템(ISO14001) 및 안전시스템(OHSAS18001) 인증 가점제를 폐지했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상생과 공생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철도기술을 확보하여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철도 청라역 4월 이후 개통기로

- 새로운 신호시스템 개발 및 성능 검증에 추가 기간 소요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지난해 말 영업개시를 목표로 추진하던 공항철도 청라역 건설공사 중 건축·전기·통신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새로운 신호시스템 적용에 따른 개발 및 성능검증에 예상보다 추가 기간이 소요되어 개통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자동운전전동열차(AREX)가 운행 중인 공항철도 선로에 신호시스템이 다른 KTX를 연계 운영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신호시스템의 개발 및 성능검증 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데다, 청라역 신호시스템은 KTX 연계운행으로 전면 개량되는 신호시스템에 추가해야 하므로 부득이 청라역 개통이 KTX 연계운행 개통 이후로 순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부는 열차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신호시스템 개발과 성능 검증을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고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종합시험운행을 거쳐 4월 중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철도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항철도 청라역 신설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순조롭게 진행

- 고속철도 운행 대비 하남역~광주송정역 추가선로 3개 건설 -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는 고속철도 운영을 위해 호남선 하남역에서 광주송정역 사이에 고속선 등 추가선로 3개를 신설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광주 광신구 소촌동 인근 철도환단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등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본부는 기존 2개선으로 운행하던 호남선 하남역에서 광주송정역 사이에 고속선 2개와 차량기지 인입선 1개선을 추가로 설치했다. 또 1월 21일 호남선 하행선을 신설 선로로 이설하면서, 기존 운행선로를 안전하게 철거 완료했고, 오는 2월 21일에는 호남선 상행선을 신설되는 선로로 이설할 계획으로 6월 말까지 고속철도 운행선로 시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추가 선로 신설에 따라 인근주민 이동편의를 위해 광신구 소촌동 인근에 승정 제1지하차도를 건설 중이며, 올해 4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총복 오송역에서 광주시 광주송정역을 잇는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8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까지 6조4000억원이 투입(공정률 80%)되어 2014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광주송정까지 소요시간이 159분에서 93분으로 66분이 단축된다.

현재 호남고속철도사업은 선형공정인 노반(路盤) 분야의 주요공정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고속열차의 운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궤도, 전철/전력, 신호/통신분야 등 후속 공사가 활기차게 진행 중이다.



호남고속철도차량 시운전 재개

- 철도노조 파업으로 중단된 시운전, 열차운행 증대로 사업 일정 만회 -

기술본부(본부장 임영록)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호남고속철도 1호 차량의 운행선로 시운전을 1월 6일부터 재개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운전에 착수한 호남고속차량은 8일 동안 단계별 증속을 거쳐 300km/h에서의 기본적인 안전성 확인 후 12월 9일 본격적인 성능시험을 앞두고 철도노조 파업으로 중지됐다.

본부는 시운전을 재개하여 열차 주행시험, 견인 및 제동시험 등 123가지의 각종 성능을 본격적으로 시험할 예정이며, 그 동안 지연되었던 일정은 열차 운행 횟수(1왕복/일 → 2왕복/일) 및 구간(서울~서대전 → 서울~부산)을 증대하여 전체 사업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차량은 경부 및 호남 고속선에서 10만km 이상 시운전을 통해 차량성능을 충분히 확인한 후 2014년 말 15편성, 2015년 6월까지 7편성 등 총 22편성이 호남고속선에 순차 투입된다.



호남고속철도 2호 열차 제작완료

- 1월 27일부터 영업운행선로에서 시운전 시작 -

기술본부(본부장 임영록)는 호남고속철도 2호 열차(동력차 2량+객차 8량)의 10량 구성을 차량 제작사가 위치한 창원공장에서 제작 완료 후 1월 21일에 출고하여 27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간다.

이번에 출고되는 2호 열차는 2012년 12월부터 부품제작에 착수하여 1년 2개월 만에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인 차량 양산(量産) 전 시제(試製) 차량 제작과정을 통해 품질을 개선했다.

열차 시운전은 철도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설특별대수송기간'을 피해 1월 27일부터 고속철도 운행선로에서 시작하며, 단계별 증속을 통해 주행, 견인 및 제동 등 69가지의 각종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호 열차에 이어 2호 열차가 출고됨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차량이 본격적으로 양산되어 2015년 6월까지 총 22대 차량의 제작 및 출고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400km/h급 Test-Bed구간 전차선로 본격 시공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차세대 고속열차의 상용화를 위해 개발된 '400km/h급 전차선로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시공에 착수했다.

본부는 '400km/h급 전차선로시스템'의 시범 적용을 위해 호남고속선 익산~정읍간 상선 28km구간을 Test-Bed로 선정하였고, 이에 앞서 작년 10월에 고강도 전차선로를 비롯한 각종 부속 자재의 국산화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바 있다.

고속철도 전철주 신설에 이어 올해 초부터 공사에 착수한 400km/h급 전차선로 설비는 전차선 가선 및 조정, 시험 등의 주요작업을 기계화 장비로 진행하며 시공품질 및 작업능률을 향상하여 정밀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Test-Bed 구간의 400km/h급 전차선로시스템 구성이 완료되면 향후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의 성능시험과 속도향상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이를 기반으로 고속철도 기술력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역, 경부고속철도 승강장 변경

- 2014년 경부고속 대전도심 공사에 따라 단계별로 열차 운행선 변경 예정 -

총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 구간 사업이 정상적인 일정대로 추진됨에 따라, 1월 15일 오전 5시 30분부터 서울방향 열차가 새로 건설된 경부고속선 선로로 운행되면서 서울방향 승강장이 5번 홈(9, 10번 선로)에서 3번 홈(5, 6번 선로)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 대전역에서 시·종착하던 대전선, 충북선 열차도 도착은 5번홈(9, 10번 선로)으로, 출발은 1번홈(1, 2번 선로)으로 각각 변경되며, 부산방향 경부고속선 및 경부선 운행열차는 2014년 말 완공될 때까지 현행과 같이 6번홈(11, 12번 선로)이 이용된다.

경부2단계 대전도심통과구간 사업은 대전역의 경부선 좌·우측에 경부고속선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전체 노선길이 8.2km, 사업비 1조1692억원이 투입된다.

대전역의 고속철도 전용선(상선)이 건설 완료됨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서울방향 운행선이 변경되어 열차 안전운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까지 완공하여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변경 전)

(변경 후)